



# 광산업 본격제도 진입

## 광산업육성위원회 출범

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산업이 본격적인 제도를 찾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 광산업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광산업의 정책방향을 이끌어 나갈 종합 사령탑인 '광산업육성위원회'가 지난 9월 공식 출범함으로써 광주의 광산업 육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세계경기 하락으로 외자유입이 주춤거리고 있는 가운데도 광관련업체들의 외자유입은 지속돼 올해들어 4개업체가 417만1천달러(54억2천200만원)어치의 외자유입을 기록하는 등 제도진입을 구체화하고 있다.

광산업육성위원회는 광주 시청 상황실에서 정부와 기업체, 학계, 금융계, 광관련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산업육성위원회' 창립총회를 갖고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과 고재유 광주광역시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와함께 광산업을 기획 조정하게 될 '정책기획소위원회'와 광산업 발전과정에서 평가를 담당할 '심사평가소위원회'를 함께 발족시킴으로써 광산업 발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통괄 조정기구와 기획, 평가 기구가 모두 갖춰지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부위원장에 구자홍 LG전자 부회장과 이기태 삼성전자 사장 등 기업인 2명과 함께 이희범 산업자원부 차관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키로 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이 함께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자리한 광산업집적화단지의 향후 육성방향과 정책에 대한 종합조정 기능이 보다 강화되면서 집적화단지가 명실상부한 한국광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육성위원회에는 오길록 한국전기통신연구원장, 주덕영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주문영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 등 연구기관과 전남대, 조선대 등 학계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하고, 김재실 산은캐피탈 사장 등 금융계까지 참여해 종합적인 조정기능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광산업 중



합사령탑이 구축됨으로써 오는 2003년까지 시행하게 될 광산업의 집적화와 자생적 기반 구축이 보다 속도를 탈 것으로 보인다.

### 광정보지원센터 1단계 구축 완료

국내의 광산업 관련 전문정보와 전자상거래기반을 제공할 웹포털시스템(www.photonicskorea.co.kr)이 구축됐다.

한국광산업진흥회(KAPID)는 광정보지원센터 구축사업(광정보망 구축 및 전자상거래 지원사업) 1차연도 과제로 지난해말부터 추진해온 '한국의 광산업 포털' 구축사업이 최근 완료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광산업 포털에는 생산기술·산업시장·경영정보 등 세계 그룹 19종 1만1200건의 광 관련 자료가 데이터베이스(DB)화돼 있으며 국내외 광산업체에 대한 분야별 디렉터리와 유관기관과의 정보망 연계서비스를 제공한다.

진흥회는 1차연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내년 10월말까지 진행되는 2차연도에는 광산업체의 e 카탈로그를 구축하고 개별 또는 복합 전자적자원 관리(ERP)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지원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는 2004년까지 95억6000여만원이 투입되는 광정보지원센터 구축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총 5만7670건의 광정보DB가 구축되고 B2B·2C 등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광 관련업체들의 마케팅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KAPID 관계자는 "국내 광 관련 정보를 분석·가공해 산업체에 제공하는 윈스톱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광정보망구축사업이 성공하려면 정부·지자체·산업체·대학·연구소 등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번 1차연도 사업으로 완성한 웹포털시스템은 광산업의 활성화와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식기반을 갖추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를 윈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광정보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KAPID는 DB구축 위탁사업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을 중심으로 대학과 연구소·유관기관에 분야별 전문정보센터를 지정, 상호협력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KAPID는 광 관련 DB구축 등 기반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2단계로 내년까지 DB 갱신 및 추가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고 오는 2003년 이후부터는 DB의 고부가가치와 정보제공자 확보 및 정보서비스 유료화를 통해 광정보지원센터의 자립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